

# 재가와 시설의 양육미혼모 정부지원 차이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Differences of the Government Social Support for Unmarried Mother Child-rearing between at the Home and in the Facilities

박영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Younghye Park(asfamily@hanmail.net)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사회적 지지 중 정부지원의 차이를 조사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최근에는 양육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며, 가장 기초적인 생계유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재가 양육미혼모가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연령과 학력이 높았으며,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월령 또한 재가 양육미혼모의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지원과 친자검사를 제외한 정부지원은 시설 양육미혼모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재가 양육미혼모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미혼모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부정책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재가 양육미혼모 | 시설 양육미혼모 | 정부지원 | 사회적지지 | 미혼모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differences of governmental parts in social supports for unmarried mothers at home and those at facilities and to look at policy alternatives. Despite of the rising number of unmarried child rearing mothers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al support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aid even the most basic sustenance. The research on the governmental supports shows that unmarried child-rearing mothers at home were more aged, more employed, more educated and had children of more month ages than those at facilities. Single mothers at facilities were getting more governmental supports excluding crisis support and paternity test than those at home who appeared to be experiencing more difficultie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work, more realistic governmental policies are proposed to help a stable settlement of unmarried child-rearing mothers.

■ keyword : | Child-rearing Unwed Mother | Unmarried Mother | Government Support | Social Support |

## 1.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지위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요인, 결혼, 자녀, 부양 등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력의 저하, 평균 수명의 증가 등 인구학적 요인들은 가족구조에 커다란

접수일자 : 2015년 10월 20일

수정일자 : 201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1월 10일

교신저자 : 박영혜, e-mail : asfamily@hanmail.net

영향을 주고 있다[1][2].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이다[3].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의 하나가 한부모 가족이다. 한부모 가족은 이혼, 사망, 별거, 유기 그리고 미혼모 등의 발생 증가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부모 가구의 수는 2010년 1,594천 가구에서 2014년 1,749천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한부모 가구에서 미혼모·부 가구가 11.6%를 차지하고 있다[4]. 미혼모의 발생원인으로는 이성교제의 기회가 많아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함에 따라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을 띠게 된 점과 혼전 성문제의 야기로 보고 있다[5][6].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요보호아동 중 미혼모 아동의 통계를 보면, 1990년 2,369명에서 2004년 4,004명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1,53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7] 이는 미혼모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유기하거나, 입양하기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규모가 1만 6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 지원 또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8][9].

이러한 양육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임신한 미혼여성 등이 출산과 상담 및 양육교육, 미혼모 시설 입소, 정부지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10]. 이는 정부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첫째는 증가하는 미혼모 아기의 국내외 입양을 지양하여 국가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게 하는 것과 둘째, 입양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가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혼모에게 초기 위기 발생 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 위기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미혼모 지원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육미혼모들이 지원받는 정책서비스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서비스,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양육수

당,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의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아동양육비와 자립지원촉진수당,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주거지원서비스,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운영에서의 프로그램운영, 친자검사 및 의료비지원, 자조모임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상담, 법률지원 등을 제공받고 있다. 미혼모 중에서도 ‘저소득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만이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다른 급여 및 서비스 대부분이 미혼모자 가족의 자립이나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

국내의 미혼모관련 선행연구는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12], 양육효능감[13], 입양관련[14][15], 미혼모 특성[16][17], 미혼모의 생애사[18][19], 임신과 출산[20][21]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지원에 있어서 실천적 현장에서의 지원에는 차이가 나며, 그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미혼모의 개념

#### 1.1 미혼모의 정의와 현황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은 여성 즉, 미혼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22].

197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역기능 현상의 하나로 서구의 성 개방 풍조와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1984년에는 24.9%였으나 1993년 55.2%, 1996년 49.6%, 1998년에는 55.1% 2000년에는

66.5%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30.8%로 나타났다[9].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관련전문가 의견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에 동의하는 비율이 90.6%로 나타났다[23].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은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로는 1996년 8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 25개로 늘어났으며[24], 2015년 현재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미혼모의 기본생활지원 시설이 33개소 입소정원 492명과,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공동생활시설이 26개소로 334세대 입소가 가능하고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공동생활지원 시설이 1개소로 10명 정원이다[25]. 시설의 증가는 곧 미혼모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으며, 입소한 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아동을 입양하지 않고 양육하려는 의지가 있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정부지원 사업의 내용

우리나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한부모 가족이 수혜를 받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2002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한부모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혼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첫째, 재가보호서비스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대출)지원 등이 있다. 둘째, 시설보호서비스로 미혼모자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으며 셋째, 미혼모·부 거점기관 지원으로 전국 17개소에서 재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임신초기부터 출산, 양육에 대해 위기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상담, 지역

연계 및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임신한 미혼여성들이 상담 및 양육교육, 미혼모 시설 입소, 주거지원과 친자검사, 학습지원, 자산형성 계좌지원,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정부지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기 위기 발생 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조사 대상을 발굴하기 어렵고, 양적 연구보다는 미혼모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인터뷰하는 질적 연구가 주로 연구되었다.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지원에 대한 차이 연구가 미흡하고 그나마 경기도정책정보고서인 경기도미혼모·부자 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2010)이 있는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정부 지원은 시설거주 미혼모의 약 3배 이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최근 미혼모·부들의 특성은 고연령화, 고학력화, 다양한 직업, 미혼부/미혼모와의 관계 변화, 자녀양육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교제 중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서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갖고 비록 원치 않는 임신이더라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발성이 높아졌다고 하였다[26].

문순영(2015)은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미혼모자가족 정책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자녀양육비를 제외하고는 미혼모자 가족의 자립이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제공과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립, 주거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은 재가와 시설 양육미혼모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었다.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에서의 자녀양육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는 재가 양육미혼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의 미혼모·부자 가족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또한 시설 양육미혼모들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재가 양

육미혼모가 주 서비스 대상이 되고 있다. 시설 양육미혼모 또한 시설에서 주어지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하였다[27].

서울특별시에서는 양육미혼모들의 탈시설화를 이루어나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재가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공동생활시설의 부족과 미혼모자거점기관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의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있다[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하면, 25세 이상 혹은 30대 미혼모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및 수입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을 결정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에 강력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9].

이현심 등은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원활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30], 홍봉선 등은 청소년 양육미혼모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해 당사자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1]. 또한 박진영 등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머니의 행복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돕는 어머니의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32].

Cheryl Mitchell(2010)은 미혼모와 미혼모 자녀를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의 핵심요소로 미혼모가정에 대한 사랑과 교육지원, 의료지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미혼모가정을 제시하고 있다[33]. Lin(2001)은 사회적 지지는 양육과정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34], Lonja Weihrauch, Ralf Schäfer(2014)의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의 연구에서는(2014)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산모의 우울증과 심리적 증상 부하의 감소로 미혼모들 복지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임이 입증되었다고 하였다[35].

이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보듯이 미혼모 관련

정책이 미혼모의 사회적 지원과 인식의 개선, 정서적지지 등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정책에 맞춰져 있으며,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 정책 내용별 차이를 알아보고 적극적인 모성권을 선택하고 있는 양육미혼모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양육미혼모와 재가 양육미혼모가 연구의 대상이며, 2015년 4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방식은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지 응답으로 표집 하였다. 설문지 응답을 승낙한 개인에게는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하였고, 설문지요청을 승낙한 시설과 미혼모 거점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난 뒤, 담당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응답 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재가 미혼모의 경우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미혼모들에게는 메일로 설문지를 보내고 유선 상으로 설문지 기입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응답이 완료되면 다시 메일로 수거하였다. 그리고 설문이 끝난 시설과 미혼모거점기관에서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수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전국의 6개 미혼모거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11개의 미혼모 시설과 단체에 미혼모 설문지 310부를 배부하였으나 메르스로 인하여 미혼모 자조모임과 교육 등이 취소되면서 실제 수거한 설문지는 238부가 회수(회수율 76.8%)되었다. 그 중에서 미혼부 설문지 2부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설문지 4부, 오류가 많았던 설문지 3부 등 총 9부를 제외한 229부가 최종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version 18)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변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유의도는 95%의 신뢰구간에서의 유의도를  $p < .05$  이상에서 검증하였다 ( $p < .005$ ,  $p < .001$ ;  $p < .0001$ ).

### III. 연구 결과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1.1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연령은 20대 미혼모가 133명(58.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미혼모가 66명(28.9%), 10대 미혼모가 20명(8.6%)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가 9명(3.7%), 50대가 1명(0.4%)로 나타났다. 만25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가 전체 229명 중에서 102명으로 44.5%를 차지하였다. 그 중 최연소 미혼모는 16세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8.34세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121명(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이 41명(18.0%), 고등학교 중퇴가 27명(11.8%), 대학재학이 22명(9.6%), 고등학교 재학이 9명(3.9%), 중학교 졸업이하가 8명(3.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고졸이상은 184명으로 전체의 80.7%로 대부분의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107명(46.7%)로 가장 많았으며, 개신교 84명(36.7%), 천주교 20명(8.7%), 불교 17명(7.4%), 기타 1명(0.4%)로 무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139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전문직포함)이 48명(21.3%), 파트타임(시간제포함)이 38명(16.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은 없음과 120만원 이하가 각각 56명(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90만원 이하가 46명(20.1%), 60만원 이하가 35명(15.3%), 150만원 이상이 21명(9.2%)이었으며, 151만원 이상이 15명(6.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90만원 이하가 137명(59.9%)으로 나타났다.

아기월령을 살펴보면, 36개월 이하가 171명(74.7%)으로 가장 많았으며, 37개월~60개월 이하가 36명(15.7%), 61개월 이상이 22명(9.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요인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10대	20	8.6
	20대	133	58.2
	30대	66	28.9
	40대	9	3.7
	50대	1	.4
학력	중졸이하	8	3.5
	고재학	9	3.9
	고중퇴	27	11.8
	고졸	121	53.1
	대재학	22	9.6
	대졸이상	41	18.0
종교	무교	107	46.7
	불교	17	7.4
	개신교	84	36.7
	천주교	20	8.7
	기타	1	.4
직업	무직	139	61.8
	파트타임	38	16.9
	정규직 (전문직)	48	21.3
소득	없음	56	24.5
	60만원이하	35	15.3
	90만원이하	46	20.1
	120만원이하	56	24.5
	150만원이하	21	9.2
	151만원이상	15	6.5
아동월령	36개월이하	171	74.7
	37개월~60개월 이하	36	15.7
	61개월 이상	22	9.6

##### 1.2 거주형태

조사대상자의 거주형태는 [표 2]와 같다. 재가 양육미혼모는 165명(72.1%)이었으며, 시설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는 64명(27.9%)으로 나타났다.

표 2. 거주형태

변수	구분	빈도(N)	퍼센트(%)
거주형태	재가	165	72.1
	시설	64	27.9

### 1.3 정부지원

조사대상자의 정부지원 유무 중 한번이라도 받았던 정부지원 [표 3]을 살펴보면,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양육미혼모는 146명(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모시설 및 모자시설거주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양육미혼모가 121명(52.8%),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양육미혼모는 110명(48.0%)로 나타났다. 출산비 지원은 108명(47.2%),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상담을 했던 미혼모가 각각 95명(41.5%)씩, 의료비지원이 94명(41.0%), 위기지원이 87명(38.0%), 주거지원이 83명(36.2%), 자조모임참여가 82명(35.8%), 취업지원이 70명(30.6%), 학습지원이 35명(15.3%), 자산형성계좌지원이 12명(5.2%), 법률지원이 11명(4.8%)이었으며, 친자검사가 가장 낮은 7명(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정부지원 유무

변 수	수혜 유무	빈도(N)	퍼센트(%)
기초생활수급비	있다	110	48.0
	없다	119	52.0
주거지원	있다	83	36.2
	없다	146	63.8
법률지원	있다	11	4.8
	없다	218	95.2
취업지원	있다	70	30.6
	없다	159	69.4
아동 양육비	있다	146	63.8
	없다	83	36.2
출산비	있다	108	47.2
	없다	121	52.8
학습지원	있다	35	15.3
	없다	194	84.7
자산형성계좌지원	있다	12	5.2
	없다	217	94.8
친자검사	있다	7	3.1
	없다	222	96.9
자조모임	있다	82	35.8
	없다	147	64.2
시설거주	있다	121	52.8
	없다	108	47.2
위기지원	있다	87	38.0
	없다	142	62.0
교육문화프로그램	있다	95	41.5
	없다	134	58.5
상담	있다	95	41.5
	없다	134	58.5
의료비 지원	있다	94	41.0
	없다	135	59.0

조사대상자의 정부지원 유무 중 한 번도 받았던 적이 없는 정부지원 [표 3]을 살펴보면, 친자검사가 222명(9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법률지원 218명(95.2%), 자산형성계좌지원이 217명(94.8%), 학습지원이 194명(84.7%), 취업지원이 159명(69.4%), 자조모임이 147명(64.2%), 주거지원이 146명(63.8%), 위기지원이 142명(62.0%), 의료비지원이 135명(59.0%), 상담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지원이 134명(58.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출산비가 121명(52.8%), 기초생활수급비가 119명(52.0%), 시설거주경험이 108명(47.2%), 아동양육비가 83명(3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15항목 중 13항목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차이검증

### 2.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조사대상자의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표 4]와 같다.

연령을 살펴보면 재가 양육미혼모는 29.27세, 시설 양육미혼모는 25.25세 이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t=3.506$ ,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시설보다 재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력을 살펴보면,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집단 간 차이는( $t=1.852$ ,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t=2.067$ ,  $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t=2.742$ ,  $p<0.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경우 직업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 $t=2.688$ ,  $p>0.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가 양육미혼모가 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어도 지출이 많으며, 시설 양육미혼모는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시설의 도움으로 지출을 적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 월령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t=3.189$ ,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에 머물고 있는 미혼모 아동의 월령이 낮으며 재가에 머물고 있는 미혼모 아동의 월령이 높음을 의미하며, 재가 양육미혼모의 연령과

아동의 월령이 시설 양육미혼모의 연령과 아동의 월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집단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연령	재가	29.27	6.845	3.506	.003
	시설	25.25	5.144		
학력	재가	4.24	1.235	1.852	.008
	시설	3.92	.989		
종교	재가	.57	.496	2.067	.891
	시설	.42	.497		
직업	재가	.52	.500	2.742	.000
	시설	.32	.473		
소득	재가	3.91	1.953	2.688	.249
	시설	3.14	1.910		
아동 월령	재가	34.81	35.32	3.189	.001
	시설	19.98	18.55		

p<0.05; p<0.01; p<0.001  
 ※ 재가 : 1 (165명), 시설 : 2 (64명)  
 직업 무 : 0, 직업 유 : 1 ; 종교 무 : 0, 종교 유 : 1

1.2 정부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조사대상자의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표 5]와 같다.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0.369,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에 대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2.410,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보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주거지원 사업의 혜택을 덜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의 부족뿐만 아니라 주거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법률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1.429,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거의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취업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2.396, 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설 양육미혼모의 취업지원이 재가 양육미혼모보다 더 정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2.535, 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 양육미혼모의 아동보다 재가 양육미혼모의 아동의 월령이 더 많아 양육비지원의 월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비 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3.888, p<0.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재가 양육미혼모보다 시설 양육미혼모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미혼모가 출산시에 가정이 아닌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습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3.435, 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재가 양육미혼모의 학습지원 연계를 보다 시설 양육미혼모의 학습지원연계가 더 잘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자산형성계좌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1.086, p<0.0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시설 양육미혼모나 재가 양육미혼모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친자검사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1.677,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더 많이 친자검사지원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미혼모거점기관인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4)의 미혼모 친자검사 건수는 2014년 78가정 중 3가정만이 친자검사의뢰를 요청하였다.

자조모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2.189,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미혼모거점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재가 양육미혼모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자조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횟수보다 시설 양육미혼모들이 시설에서 더 많이 자조모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거주 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5.711, 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재가 양육미혼모보다 시설 양육미혼모가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가 양육미혼모의 경우 처음부터 시설보다 재가에서 생활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1.308,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기지원은 미혼모거점기관에서 재가 양육미혼모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문화 프로그램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t=2.550, p>0.05)와 상담에 대한 집단 간 차이(t=3.822, p>0.05), 의료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t=4.252, p>0.0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주거·법률·취업·양육비·출산비·학습·자산형성계좌·친자검사·자조모임·시설거주경험·위기지원이다. 그 중에서도 위기지원과 친자검사를 제외한 주거·법률·취업·양육비·출산비·학습·자산형성계좌·자조모임·시설거주경험은 시설 양육미혼모가 더 높았으며, 친자검사와 미혼모거점기관의 위기지원만이 재가 양육미혼모가 더 높아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정부지원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은 평균 0.37로 정부지원 무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정부지원 집단 간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수급	재가	.47	.369	.664
	시설	.50		
주거지원	재가	.31	2.410	.002
	시설	.48		
법률지원	재가	.06	-1.429	.003
	시설	.15		
취업지원	재가	.26	2.396	.000
	시설	.42		
양육비	재가	.59	2.535	.000
	시설	.77		
출산비	재가	.39	3.888	.045
	시설	.67		
학습지원	재가	.30	3.435	.000
	시설	.45		
자산형성	재가	.04	1.086	.032
	시설	.08		
친자검사	재가	.04	-1.677	.001
	시설	.00		
자조모임	재가	.32	2.189	.002
	시설	.47		
시설거주 경험	재가	.42	5.711	.000
	시설	.50		
위기지원	재가	.41	-1.308	.004
	시설	.31		
프로그램	재가	.36	2.550	.053
	시설	.55		
상담	재가	.34	3.822	.186
	시설	.61		
의료비	재가	.33	4.252	.207
	시설	.63		
총계	11.23	12.321		
전체평균	.37	.417		

p(0.05): p(0.01): p(0.001)  
 ※ 재가: 1 (165명), 시설: 2 (64명);  
 정부지원 무(0), 정부지원 유(1)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부지원의 정책 방향을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분석 자료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양육미혼모 229명을 설문 조사하여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양육미혼모 전체에 대한 정부지원 유무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부지원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과 학력, 직업유무와 아동 월령에 있어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연령과 학력이 높았으며,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고, 생활비 확보를 위하여 재가 양육미혼모의 경우 직업을 더 필요로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0)의 미혼모 고연령화, 고학력화로 나타난 연구를 지지한다. 아동의 월령 또한 재가 양육미혼모의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양육미혼모의 연령과 아동의 월령이 비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월령이 낮을수록 미혼모의 자립생활이 어려워 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부지원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 유무와 교육문화프로그램지원 유무, 상담, 의료비에서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는 12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과 상



담, 의료비지원이 많지 않고 공통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주거·법률·취업·양육비·출산비·학습·자산형성계좌·친자검사·자조모임·시설거주경험·위기지원은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위기지원과 친자검사를 제외한 주거·법률·취업·양육비·출산비·학습·자산형성계좌·자조모임·시설거주경험은 시설 양육미혼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 양육미혼모가 시설에서의 지원과 정보를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친자검사와 미혼모거점기관의 위기지원만이 재가 양육미혼모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위기지원이 시설의 미혼모에게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재가 양육미혼모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이며, 친자검사 또한 위기지원을 받는 재가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재가 양육미혼모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이 시설거주 미혼모의 정부지원보다 약 3배 이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한 경기도미혼모·부자 가족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양육미혼모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활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 재가 양육미혼모는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아동의 돌봄이 되지 않을 경우 직장을 포기하기도 한다. 미혼모들의 지속적인 직장생활과 안정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봄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양육미혼모를 위한 임신과 출산 시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양육미혼모의 연령이 재가 양육미혼모의 연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시 초기 위기지원을 하는 시설을 축소시키고 그 시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 운영을 하고 있어 미혼모들이 출산 전후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시

설의 설치와 유지를 통하여 미혼모의 초기 위기대응을 도와야 한다.

셋째, 양육미혼모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지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양육미혼모는 시설의 종사자들로부터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주거 지원과 취업을 위한 자활교육과 학습 등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 반면에 재가 양육미혼모의 경우 혼자서 정보를 습득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육미혼모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 병원 및 주민 센터 등에서 미혼모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을 알려 주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해 보면, 본 연구의 한계는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정부지원 유무에 대한 차이만 본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들에게 정부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지원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을 기반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1] 김혜경, 도미향, 문혜숙, 박충선, 손홍숙, 오정옥, 홍달아기,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1.
- [2] 이원숙,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 [3] 이복숙, 전영주, “미혼모 생애사 연구,” 여성연구논집, 제16권, 2005.
- [4] 통계청, 한부모가족비율, 2014.
- [5] 김만지, “청소년 임신과 스트레스,” 한국사회복지학회, No.1, 2000.
- [6] 남미애,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회, Vol.44, 2013.

[7] 통계청,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2014.  
 [8]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2014.  
 [9]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10]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직원교육자료, 2014.  
 [11]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내부자료, 2013; 2014; 2015.  
 [12] 김만지,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2.  
 [13] 문정숙,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14] 임혜영, 이혁구, "입양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65, No.3, 2013.  
 [15] 이은주, 최규련, "시설미혼모의 양육/입양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3권, 제2호, pp.247-260, 2014.  
 [16] 전은희, 사이코드라마가 미혼모의 우울, 충동성, 자존감 및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4.  
 [17] 박혜경, 미혼양육모가 경험하는 심리현상,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4.  
 [18] 김영신,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경험," 한국사회복지직접연구, Vol.5, No.1, 2011.  
 [19] 권희정,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화 역사," 구술사연구, Vol.5, No.2, 2014.  
 [20] 서정애, 십대여성의 임신과 '모성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21] 김혜영, "십대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경험: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 Vol.26, No.4, 2010.  
 [22]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5th*, Washington DC: NASW Press, 1965.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가와 양육미혼모의 지원방향을 논하다, 2012.  
 [24] 보건복지가족부, 가족통계, 2008.  
 [25] <http://withmom.mogef.go.kr/>  
 [26]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 미혼모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연구, 2010.

[27] 문순영,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pp.73-103, 2015.  
 [28] 서울특별시, 미혼모지원시스템 정비를 위한 연구, 2014.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2012.  
 [30] 이현심, 한규철, 전기복, "한부모여성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3, 2013.  
 [31]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9호, 2012  
 [32] 박진영, 부성숙,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1, 2014.  
 [33]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미혼모지원정책포럼, 2011.  
 [34] N. Lin, *Social Capit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1.  
 [35] W. Lonja, S. Ralf, and F. Matthias, "Long-term efficacy of an attachment-based parental training program for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Pubic Health*, Vol.22, No.2, pp.139-153, 2014.

저 자 소 개

박 영 혜(Young-Hye Park)

정회원



- 1986년 2월 :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이학사)
- 2008년 2월 : 강남대학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졸업예정

▪ 2007년 7월 ~ 현재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관심분야> : 다양한 가족, 미혼모 · 한부모 가족